10.18219/ddmh..115.202109.7

石亭 李定稷의 生涯와 著述 및 交遊關係

朴徹庠*

Ⅰ. 시작하는 말
Ⅱ. 이정직의 생애와 저술
Ⅲ. 이정직의 교유 인물
Ⅳ. 맺음말

• 국문초록

석정 이정직은 조선 말기의 書畵家이자 學者이다. 그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뤄졌고, 그의 서화를 소개하는 전시회 또한 여러 차례 열렸다. 그러나 이들 연구와 전시회에 소개된 이정직에 관한 정보는 많은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게다가 이정직이 주로 전주와 김제 지역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그의 교유 인물들에 관한 정보도 빈약했다. 이는 이정직 연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먼저 이정직의 생애와 저술에 관해 검토하였다. 새로운 자료를 통해 이정직에 관한 보다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다음으로 이정직의 교유관계를 살펴봤다. 기존에는 黃玹과 李沂를 중심으로 이정직의 교유관계를 다뤘지만, 여기서는 이들을 제외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특히 이건창과의 교유는 새롭게 소개되는 부분이다. 이 밖에도 이정직의 교유 인물을 지역별로 간략히 정리하였다.

주제어 : 石亭, 李定稷, 李建昌, 李沂, 黃玹

* 한국문헌문화연구소

Ⅰ. 시작하는 말

石亭 李定稷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호남에서 활동한 書畵家이자 文人이며, 學者이자 志士였다. 그는 전라북도 金堤 출신으로 性理學은 물론이고 詩文書畵 및 陰陽, 卜筮, 醫藥, 星曆, 律呂, 算數, 名物에 이르기까지 깊이 연구한 通儒였다. 또한 전라북도 근대 書畵의 토대를 마련한 인물이다. 특히 詩文書畵에 있어서 그의 敎學 방식은 근대 全州를 藝鄕으로 변모시킨 동력이 되었다. 梅泉 黃玹, 海鶴 李沂와 함께 湖南三傑로 불렸다는 점은 근대 호남에서 이정직의 위상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이정직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높아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의 활동 영역과 교유 범위가 호남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의 관심이 전통 儒學이 아닌 書畵에 집중되었던 것도 한 요인이 되었다. 오히려 朴鍾鴻이 칸트 철학을 조선에 소개한 인물로 이정직을 소개하면서 학자로서의 명성이 알려지게 되었다.[1] 또 전시회와 함께 전시 도록이 제작되면서 서화를 중심으로 그의 이름이 알려졌다.[2] 이를 계기로 詩文書畵에 관한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또한 이정직의 문집이 번역 출간되면서 그의 글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3] 특히 2019년에 국립전주박물관이 개최한 전시 '선비, 전북 서화계를 이끌다 : 석정 이정직(1841~1910)'은 기존의 전시를 종합하고 새로운 자료들을 대거 소개함으로써 이정직 연구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정직의 생애와 교유관계를 이제야 정리한다는 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기존 연구 성과를 검토해보면 그의 생애와 교유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류가 상당하다.[4] 문집 번역본에 인물 정보가 거의 없다는 점도 이를 방증한다. 게다가 연구 논문이 증가할수록 기존 논문을 인용하는 빈도가 늘고 있는데, 오류도 계속 재생산되고 있다. 향후 연구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중 일부는 지난 전시에 도록에 실린 졸고를 통해 바로 잡기도 했지만,[5] 본 논고는 지난번 졸고에 이른 추가

1) 박종홍, 「이정직의 칸트 연구」, 『박종홍전집』 5, 형설출판사, 1980, 283~285면.
2) 한국서예문화연구회, 『김제서예의 전통과 현대』(한국서예사료집1), 2003; 한국서예문화연구회, 『石亭 李定稷』(한국서예사료집2), 2004.
3) 이정직, 김제문화원 번역, 『石亭 李定稷 遺藁』, 김제문화원, 2001.
4) 단행본으로 김도영의 『전북서예의 중흥조 석정 이정직』(신아출판사, 2019) 및 구사회의 『근대계몽기 석정 이정직 문예이론 연구』(태학사, 2013)가 있다.

연구라고 할 것이다.[6] 또한 교유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이정직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는데 있어서도 필요하다. 인물별로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긴 어렵지만, 대략이나마 교유의 윤곽을 확인하고자 한다.

Ⅱ. 이정직의 생애와 저술

李定稷(1841~1910)의 字는 馨五 또는 元甫,[7] 號는 石亭, 당호는 燕石山房, 본관은 新平이다. 初名은 禎奭[8]이고 후에 禎稷[9]으로 썼다가 다시 定稷으로 고쳤다. 부인은 東萊鄭氏(1843~1881)로 鄭致裕의 따님인데, 39세에 사망하였다. 이정직의 鼻祖는 高麗 平章事를 지낸 李德明이다. 이정직은 이덕명의 9세손으로 吏曹判書를 지낸 李上垣(1336~1401)의 후예이다. 이덕명의 9세손 李世顯(1506~1534)이 成均進士에 합격했기 때문에 進士公派로 불린다. 이정직의 선대에는 현달한 인물이 없었고 일부 武班으로 진출한 인물들이 있었다. 주로 서울 근교에서 터를 잡고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金浦에서 世居하다가 부친 李啓煥(1818~1884)에 이르러 金堤로 거주지를 옮겼다고 한다.[10] 이계환의 자는 仲明, 호는 經農이며, 부인은 慶州李氏(1818~1870)이다. 道光 30년(1850) 武科에 丙科 第91人으로 합격했지만 實職에 나가지는 않았던 듯하고, 光緖 9년(1883)에야 宣略將軍 行龍驤衛 副司果의 직첩을 받았을 뿐이었다. 이정직이 文班으로 진출하길 원했던 이계환은 이정직의 교육에 깊이 관여하였고, 이정직

5) 박철상, 「첩학의 대가, 석정 이정직」, 『선비, 전북 서화계를 이끌다-석정 이정직』(특별전 도록), 국립전주박물관, 2019, 186~211면.

6) 다만, 지난번 논고에서 필자는 蔡敬默을 蔡濟恭의 서현손으로 봤는데, 추가 자료가 발굴되어 동명이인임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서술한다.

7) 이정직의 제자 趙秉憲과 그의 부친 趙方淳이 주도한 김제의 『衛聖常約』(필사본, 개인소장)의 約員氏名에는 이정직의 자가 元甫로 표기되어 있다.

8) 이정직이 13세에 유학을 하자 이계환은 〈戒簡〉을 써줬는데, 여기서 '禎奭'으로 표기하고 있다. 또 이정직이 소장했던 전주판 『剪燈新話句解』에는 〈夏泉〉, 〈李禎奭印〉이 찍혀 있다. 이를 통해 이정직의 젊은 시절 이름이 李禎奭이었고, '夏泉'이란 호를 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9) 후손가에 소장 되어 있는 〈丙子式戶籍單子〉에는 '幼學李禎稷'으로 표기되어 있다.

10) 宋基冕, 『石亭集』附錄, 〈行狀〉, "世家金浦,至公始居于金堤."

이 과거 공부에 매진하도록 독려하였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병을 달고 살았던 이정직은 과거 공부보다는 시문과 서화를 비롯한 실생활에 필요한 학문을 익히는 데 힘을 쏟았다. 이는 과거를 통해 관직에 나가기 어려운 상황 때문이기도 했지만, 가난한 집안의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책임 때문이기도 하였다. 특히 과거제가 폐지되면서 이정직은 오로지 시문서화에 몰두하였다.

이정직의 생애에 관한 공식적인 기록으로 제일 빠른 것은 1918년에 간행된 『金堤郡誌』에 수록된 제자 宋基冕(1882~1956)의 <李石亭本傳>[11]이다. 송기면은 이정직의 삶과 학예를 가장 가까이서 접하였기 때문에 그의 서술은 이정직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 송기면은 이후 이정직의 <行狀>을 썼고, 이는 1923년에 간행된 『石亭集』에 실려 있다. 또한 이정직이 직접 기록한 『傳家錄』[12]을 통해서는 18세 이전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다.

『傳家錄』에 따르면 이정직은 서당과 집에서 기초적인 한문을 배웠다. 9세 때 처음으로 글방에 나가 崔學鵬에게서 『通鑑』을 배웠고, 11세~12세에는 부친 이계환에게서 『孟子』와 『論語』를 배웠다. 12세 때에는 이계환이 『易經』을 구해주었는데, 이는 이정직이 『易經』에 깊은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계환은 이정직에게 『詩經』과 『書經』을 먼저 읽고, 『易經』은 마지막에 읽을 것을 권했다. 그럼에도 이정직이 『易經』 공부에 계속 매달리자 전북 泰仁의 姜會民에게 보내 『周易』을 배우도록 하였다. 이는 훗날 이정직의 실용적 학문 경향과도 관련이 있다. 그리고 13세에는 金溝의 安廷鳳을 찾아가 『大學』, 『中庸』 등을 익혔고, 數學도 공부하였다. 이때 부모를 떠나 유학 가는 아들에게 이계환은 <戒簡>이라는 글을 지어주며 학업을 독려하였다.

> 아비가 되어 아들을 타이르지 않는 것은 아들이 되어 아버지의 타이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같다. 아비가 되어 타이르지 않고 아들이 되어 타이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찌 그것이 아버지의 도리이고 아들의 도리라 하겠느냐? 옛날에 공자께서는 아들 伯魚를 타이르며 말했다. “사람이 되어서 『詩經』의 <周南>과 <召南>을 배우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담장을 마주 보고 서 있는 것

---

11) 〈李石亭本傳〉은 제자인 裕齋 宋基冕이 지은 것으로 1923년에 간행된 『石亭集』에 실리는 宋基冕 〈行狀〉, 宋毅燮 〈本傳〉, 張錫英 〈墓碣銘〉의 기초가 되는 기록이다. 『石亭集』에는 이 글이 실려 있지 않다.

12) 李定稷, 『燕石山房未定文藁內集』, 「傳家錄」(이종석 소장, 필사본)

과 같은 것이다.” 그러자 伯魚는 물러나 『詩經』을 공부했다. 이는 아버지가 아버지의 도리를 다한 것이고 아들은 아들의 도리를 다한 것이다. 그러므로 伯魚는 나이가 비록 젊어서 죽었으나 아들로 子思를 두어 할아버지 공자의 학문을 잇고 우리 유학을 전했으니 세상에서는 百代의 스승으로 여긴다. 참으로 존경할만하지 않겠느냐? 참으로 추모할만하지 않겠느냐? 한나라 昭烈皇帝인 劉備는 後王을 타일러 말했다. “착한 일은 작다고 하지 않아서는 안 되며, 나쁜 일은 작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후왕이 물러나 착한 일을 행하지 않았으니 이는 아버지가 아버지의 도리를 다했지만, 아들은 아들의 도리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天子의 자리에 있으면서 한나라 도적에게 무릎을 꿇었고, 끝내는 宗室이 없어지는 지경에 이르러, 영원히 욕을 먹었다. 참으로 조심해야 하지 않겠느냐?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니겠느냐? 옛날 사람들은 아버지를 하늘에 비유했고, 어머니를 땅에 비유했다. 그러니 아버지의 명은 바로 하늘의 명인 것이다. 어찌 天命을 거스르고 번창하는 놈이 있겠느냐? 戰國시대의 趙簡子는 訓戒하는 말을 두 개의 竹簡에 써서 두 아들에게 주었다. 3년 뒤에 물었더니 큰아들 伯魯는 그 말을 잊어버렸고 그 죽간도 분실하였다. 둘째 아들 無恤은 아버지가 써준 말을 외우고 그 죽간을 품속에 지니고 있었다. 두 아들의 어질고 어리석음은 참으로 같이 논하기 어렵다. 그러나 伯魯의 정성이 無恤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 伯魯의 재주가 無恤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가지고 본다면 정성이 중요한 것이고 재주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네가 이 편지를 받는 날이 바로 無恤이 죽간을 받은 날인 것이다. 모름지기 ‘誠’이라는 한 글자를 가지고 공부해야 한다. 네 아비의 현명함이 옛사람에 미치지 못하고, 지혜가 옛사람에 미치지 못하니 감히 내가 글을 지어서 너를 타이르지는 못하고 삼가 성인의 訓辭를 서술하여 네게 준다. 그러니 이를 마음에 잘 간직하고 몸에 體得하여라. 일어서면 서 있을 때 익히고 앉으면 앉아있을 때 익혀서 네 아버지의 걱정하며 잊지 못하는 마음을 저버리지 마라. 六蔽는 공자께서 季路를 타이른 것이고, 四勿은 공자께서 顏淵을 타이른 것이다. 이 訓辭를 가지고 본받는다면 달리 더할 게 없으니 단연코 好學으로 타이름을 받아들이는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만약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성현들의 成法을 고찰할 수 없고 사리의 당연함을 알 수 없게 된다. 게다가 아들이 어버이를 섬김에 감히 멀리 놀러가지 않는 것은 어버이를 떠나면 아침저녁으로 보살펴드릴 수 없기 때문이며, 자신이 어버이 생각을 그만둘 수 없기 때문만이 아니라, 어버이가 자신을 염려하며 잊지 못하는 걸 걱정하기 때문인 것이다. 너는 이제 멀리 遊學하러 가는 사람이다. 장차 어진 스승에게 가서 좋은 친구를 가려서 사귀며 詩를 외

> 우고 禮를 강론하여 옛것을 널리 알아 현실에 통달해야 한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는 한갓 그 어버이께 잊지 못하는 걱정을 끼칠 뿐이다. 어찌 그것이 아들 된 자의 도리라 하겠느냐? 아들 된 자가 조금이라도 여기에 생각이 미친다면 어찌 한 시라도 헛되이 놀겠느냐? 혹시라도 글 읽기가 싫증나면 이 편지를 꺼내 보고 스스로 타일러라. 효도는 어버이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큰 게 없는 것이다. 네가 효도하고 불효하는 것은 배움을 부지런히 하느냐 않느냐에 달렸을 뿐이다. 삼가고 또 삼가야 한다. 癸丑(1853) 2월 乙未에 經農이 큰아들 禎奭에게 써준다.[13)]

멀리 유학을 떠나는 열 세 살짜리 아들 이정직에게 써준 아버지의 글이다. 이 글 뒤에는 <六蔽>와 <四勿>, 그리고 程子의 <四勿箴>이 묵서되어 있다. 이정직은 평생 이 글을 외우고 또 외웠을 것이다. 그러나 이정직은 몸이 아파 그해 여름에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자 이계환은 이정직을 위해 고서 80여 책을 사주었고, 집에서『詩經』과『書經』을 읽도록 했다. 그리고 이정직은 아버지의 권유로 몇 년 동안 과거 공부에 매진하였다. 특히『通鑑』을 배웠던 崔學鵬에게는 1년 동안 과거시험에 필요한 時文을 배웠다. 이정직은 과거를 준비하면서 時文을 익히기도 했지만 중도에 포기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이정직의 생애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13) 李啓煥, 〈戒簡〉(이종석 소장, 필사본). “父而不戒, 猶子而不受戒也. 父而不戒, 子而不受戒, 何其爲爲父之道, 何其爲爲子之道耶. 昔者, 夫子戒伯魚, 曰人而不爲周南召南, 其猶正墻面而立, 伯魚退而學詩. 是父盡父道, 而子盡子道也. 故伯魚年雖不暇給, 子有子思, 繼祖業傳吾道, 世爲百代之師, 可不欽哉, 可不慕哉. 漢昭烈戒後王, 曰勿以善小而不爲, 惡小而爲之, 後王不能退而修善. 是父盡父道而子失子道也. 故以萬乘大統之位, 屈膝於漢賊, 終至滅祀, 永受萬世之罵, 可不愼哉, 可不懼哉. 古人以父比之天, 以母比之地, 父命卽天命也, 安有逆天命而昌者乎. 戰國時趙簡子書訓戒之辭二簡, 以授二子, 三年而後問之, 伯魯忘其辭而失其簡, 無恤誦其辭而懷其簡. 二子之賢愚, 固不可同日而語, 然是伯魯之誠, 不及無恤, 非伯魯之才不及無恤. 以此觀之, 誠爲本而才爲末也. 汝受此簡之日, 卽無恤受簡之日也. 須以一誠字爲工也. 汝父賢不及古人, 智不及古人, 不敢作而戒之, 謹述聖人訓辭而授之, 存之於心, 體之於身, 立則立時習, 坐則坐時習, 無孤汝父念念不忘之心也. 六蔽夫子之戒季路者也, 四勿夫子之戒顔淵者也. 以此訓辭爲法, 則他無可加, 斷斷以好學爲受戒之本也. 若不好學則無以考聖賢之成法, 識事理之當然. 且人子之事親也, 不敢遠遊者, 爲其去親而定省曠, 不惟已之思親不置, 亦恐親之念我不忘也, 而汝今遠遊者, 將欲就賢師擇益友, 誦詩講禮, 博古通今也. 若或反是則是徒貽其親以不忘之憂也. 何其爲爲子之道耶. 爲人子者, 一分念到於此, 豈可一時浪遊乎. 或有厭讀之時, 出示此簡以自戒也. 孝莫大於養志, 汝之孝不孝, 在於學之勤不勤如何耳. 愼之愼之. 歲癸丑二月乙未經農書授長兒禎奭.”

1. 이정직의 燕行

이정직의 생애에서 燕行은 가장 중요한 경험이었다. 하지만 이정직의 글에서는 燕行을 다녀온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 이정직이 이에 관한 많은 기록을 남겼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갑오농민운동 당시에 모두 소실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가 언제 누구를 따라서 燕行을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송기면의 <李石亭本傳>에는 다음 기록이 있다.

> 28세에 燕京에 유학했다. 서점에 열흘 동안 묵으면서 百家의 많은 책들과 漢魏 이래의 모든 시들을 두루 읽었다.[14)]

이후 송기면이 쓴 이정직의 <행장>에는 劉庠, 卓景廉과 교유한 내용이 추가되었고, 宋毅燮의 <本傳>에서도 이를 그대로 따라 쓰고 있다. 이 밖에도 '28세 때인 1868년에 연행사인 御營大將 李鳳九의 수행원으로 청나라에 들어가 1년 동안 체류했다'[15)]는 등의 서술이 있지만, 확인되지도 않고 상식적으로도 인정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봉구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정직의 燕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가장 확실한 기록은 친구인 崔輔烈(1847~1922)이 이정직의 회갑을 맞아 써 보낸 시에 나타나 있다.[16)]

早歲遊燕北	이른 나이 연경에 노닐었으니
胸宇已迴迢	가슴속 포부 이미 멀리 달려 나갔네.

이 시는 최보열이 이정직에게 직접 써준 것이기 때문에 이른 나이에 연경에 노닐었다는 기록 역시 이정직의 입에서 직접 나왔을 게 분명하다. 젊은 시절 연행은 이정직의 일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게 분명하지만,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연행에서 돌아온 뒤 이정직은 부모님을 공양하기 위해 智異山으로 이거했다고 한다.[17)] 이후

---

14) 宋基冕, 『金堤郡誌』, 〈李石亭本傳〉, "二十八北遊燕京, 僑書鋪旬日, 遍覽百家全書及漢魏以來全詩."
15) 최영성, 「'石亭 李定稷 遺藁' 解題」, 『石亭李定稷遺藁』 I , 김제문화원, 2001. 8면.
16) 崔輔烈, 『篔亭集』 권1, 〈壽石亭五古〉.
17) 宋基冕, 『石亭集』附錄, 〈行狀〉.

부친의 권유로 金堤郡 白石坊 蓼橋里에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때 이정직은 石亭이란 호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 미상의 <石亭山房記>가 현전하는데, 이정직이 '石亭'이란 호를 사용하게 된 연유를 확인할 수 있다.

> 石亭은 우리 집안의 훌륭한 인재인 定稷의 별호이다. 정직에게 漢北 풍토의 빼어난 기운이 모였으니 타고난 자질이 뛰어났다. 湖南의 산수에 노닐어 시문이 고매하니 당대 사람들이 따르기를 간절히 바랐다. 약관의 나이에 청나라에 가는 사신을 따라가 풍기와 인물을 두루 보고 좋은 서적들을 널리 수집하여 식견이 넓어져 돌아오니 행동이 대략 蘇子由(蘇轍)와 비슷했다. 老宗長 宣傳公(필자주:李啓煥을 가리킴)께서는 그의 성품이 꼿꼿하고 뜻이 迂闊한 걸 알고는 반드시 金堤郡 白石坊 蓼橋里 밭 가운데를 거주지로 선택하도록 하니, 그 아들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어길 수 없어 그대로 여기에 자리를 잡았다. 마을 서쪽 언덕에 돌이 하나 있어 우뚝 서 있는데 높이가 몇 길이나 되었다. 비바람이 아무리 몰아쳐도 그 머리를 벗겨낼 수 없었고, 이끼가 아무리 덮여도 그 얼굴을 깎아내지 못했으니 참으로 奇怪한 물건이었다. 만일 米元章으로 하여금 보게 했으면 '丈人(어른)'이라 부르며 절을 했을 것이고, 文與可로 하여금 보게 했다면 '益友'라 부르며 이를 칭찬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 풀 속의 깨진 벽돌과 다름없이 울퉁불퉁한 모습을 누가 좋아하고 아끼겠는가? 정직이 날마다 서쪽 언덕에 가서 손으로 어루만지며 걸터앉아 있기도 하며 그 돌을 아꼈는데 그 돌에 축원하였다. "내가 너로 호를 삼을 것이니 네가 능히 나를 부를 수 있겠느냐?" 이래서 호를 石亭이라 하였다. 石亭의 생각은 그 몸체가 육중하고 그 문양은 추하지만 오래도록 부서지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내가 서로 어울린 지 50년인데 정의가 돈독할 뿐만이 아니라, 늘 石亭의 文藁가 세상에 전해지지 못할까 걱정했다. 그래서 감히 거친 말을 엮어서 여러 군자들에게 알린다. 후인들은 이를 보고 간행에 이르게 하지는 말지어다.[18]

---

18) 撰者 미상, 〈石亭山房記〉(이종석 소장, 필사본), "石亭者, 余之宗英人定稷之別號也. 定稷鍾於漢北風土, 而天姿英秀, 游於湖南山水, 而文雅高邁, 當世之人, 莫不翹首趨風爾. 年當弱冠, 价赴上國, 周覽風氣人物, 博采典章儀文, 汗漫而歸, 行止略與蘇子由相比等耳. 老宗長宣傳公, 知其性倨志迂, 必擇里於金堤郡白石坊蓼橋里畎畝間, 以其子不可違父訓, 因庄占於斯焉. 村西岡有一介石, 亭亭特立,高數仞餘, 風雨千打, 而不能剝其頭, 苔蘚百侵, 而不能蝕其面, 眞奇怪之物也. 若使米元章見之, 則稱丈人而拜之, 使文與可見之, 則呼益友而贊之. 今無其人, 誰能愛惜, 碨礧形容, 無異草萊間瓦礫碌也. 定稷日造西岡, 手以摩挲, 足以踞跨, 愛其石, 祝其石, 曰我以爾爲號, 爾能稱我否. 因號曰石

이 기록은 이정직에 관한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漢北’의 빼어난 기운을 받고 태어났다는 구절을 통해 그의 집안이 본래 서울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처음 정착한 곳은 ‘蓼橋里’가 아니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이정직의 <丙子式戶籍單子>에 ‘白石面蓼橋里’로 기록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정직이 적어도 36세 때인 1876년 이전에는 이곳에 정착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정직의 생애에 관한 기존의 기술 중에서 잘못된 부분도 있다. 대표적으로 ‘42세(1883)부터는 다시 金堤에서, 46세부터는 大邱에서 살았고, 52세 전후에는 淳昌에서 잠깐 사는 등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였다’고 한 부분이다.[19] 그런데 이는 이정직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李沂에 관한 것이다. 李沂가 1892년에 쓴 <歸讀吾書集自叙>에는 다음 글이 있다.

> 나는 壬午(1882)부터 金堤에서 머물다가 丙戌(1886)에는 大邱에서 지냈으며 이제 또 淳昌에서 머물고 있다. 10년 동안 먹고사는 일로 바삐 지내다가 돌아가고픈 탄식을 입에 내지 않는 날이 없었다.[20]

李建昌, 李定稷, 李沂의 글을 뽑아 편찬한『諸家文英』[21]이란 책이 현전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이기의 글을 이정직의 글로 오해했던 듯하다.

2. 동학농민운동과 김제 정착

연경에서 돌아온 이정직은 한 때 지리산 아래서 살기도 했지만, 집안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전주에서 藥鋪를 운영했다. 그러나 1894년 갑오 동학농민운

亭. 石亭之意, 貴其體之重文之醜, 久久不泐者也. 余相從五十年, 不但情誼之篤厚, 常恐石亭文藁不傳於世, 故敢搆荒蕪, 告諭諸君子, 後之人覽此勿至剞劂也哉.”

19) 김도영,『전북서예의 중흥조 석정 이정직』, 신아출판사, 2019. 20쪽.

20) 李沂,『海鶴遺書』권7, 〈歸讀吾書集自叙〉, “自壬午, 客于金堤, 丙戌客于大邱, 今又客于淳昌. 十年之間, 衣食奔走, 歸與之歎, 無日不發諸口.”

21) 1책의 필사본으로 李建昌의「明美堂文選」, 李定稷의「燕石山房文藁」, 李沂의 글 몇 편이 함께 필사되어 있다. 이정직의 제자인 姜東曦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에는 〈歸讀吾書叙〉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동을 겪으면서 모든 걸 잃고 말았다. 최보열이 이정직의 회갑을 맞아 쓴 글이다.

> 일찍 들으니 중년에 가난 때문에 도시에서 한약을 팔았다고 한다. 甲午년 난리를 만나 가지고 있던 인삼, 백출, 세간, 서적 등이 수천 금에 달했는데 모두 잿더미가 되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안타까워하지 않았다. 마음속에 득실을 염두에 두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22]

이정직은 1894년의 동학농민운동으로 겨우 모았던 재산과 서적, 그리고 그때까지 모아두었던 자신의 저술들마저 한꺼번에 잃고 말았다. 난리 속에 원고를 모두 소실되자 이정직의 상심은 아주 컸다. 이정직은 그때의 심정을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 隱皐 李學圭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이다.

> 지난 갑오년에 머물던 곳에 불이 났는데, 다른 것은 안타까울 게 없지만 가지고 있던 책들이 모두 사라졌으니 슬프고 정신이 멍하며 코가 찡합니다.[23]

더구나 갑오경장으로 과거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 명리에 대해서는 관심을 끊고 다시 김제로 돌아왔다. 許奎에게 보낸 편지에는 김제로 돌아온 뒤 바쁘게 지내고 있는 이정직의 일상이 잘 드러나 있다.

> 갑오년 이래로 오랜 원고가 불에 타버린 게 분했기 때문에 文字에 더욱 힘을 쓰느라 한시도 한가한 틈이 없고, 때때로 서화의 일이 있는데 독촉이 마치 세금을 재촉하는듯하니 밤낮으로 쉴 여유가 없습니다.[24]

이정직은 새로운 마음으로 詩文에 몰두하고 있었다. 또 이때 이정직은 동학농민운동에 관해 『南匪志』를 저술했는데, 黃玹은 편지를 보내 빌려달라는 부탁을 했지만[25]

---

22) 崔輔烈, 『篔亭集』 권2, 〈李石亭定稷六十一初度壽序〉, "嘗聞中歲爲貧, 賣藥城市中, 當甲午之燹, 所有蔘朮什器與書籍, 其直數千金, 而盡委焦土, 輒芥視而不之惜. 其不置得失於心者歟."

23) 李定稷, 『燕石山房未定文藁』 3, 〈與李雲皐書〉, "往在甲午, 旅所入燹, 它不足惜, 而所携書卷, 盡化烏有, 黯然酸鼻."

24) 李定稷, 『燕石山房未定文藁』 2, 〈答許卯園書〉, "蓋由甲午以來憤宿藁盡火, 尤用力於文字, 無一時安閒之隙, 而時時有臨池之役, 徵責如催租, 夜以繼日, 迄不暇休."

현전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주에서 약포를 운영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도 했지만, 상당한 문학적 성취도 이뤘던 것으로 보인다. 〈燒餘錄序〉에 담긴 기록이다.

> 나는 詩文에 있어서 성품을 발현하는 데에는 인색하고 공교롭게 하는 것에는 선을 그었으니 느슨하고 천박하여 예나 지금이나 크게 온당치 못하다. 그러나 좋아하기는 굶주린 사람이 음식을 찾고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보다도 더하여 얻는 대로 상자 속에 넣어두었다가 오래 지나서 꺼내 읽어보는데, 맘에 들지 않으면 곁에 점을 찍고 여러 번 고쳐 그 원고를 바꾸었다. 얼마 있다가 繕寫하여 책을 만들었는데, 갑오년 난리에 불에 타버렸다. 아마 조물주가 나의 졸렬함을 감춰주기 위해서 그런듯한데, 나는 어리석기가 글보다 더하여 아직까지도 정을 떼거나 비방을 멀리하지 못하고 다시 난리 뒤로부터 모았으니 詩가 모두 약간이고 文도 약간이다. 내가 죽을 때까지 얼마나 얻을지 모르겠지만 '燒餘錄'이라 이름 붙였다.[26)]

갑오년 이전에 지은 글들이 상당히 많았고, 이를 모아 책으로 엮었지만 모두 불에 타버린 것이다. 그러나 이정직은 실망하지 않고 다시 시문을 짓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들을 모아 『소여록』이라 하였다. 이정직 초기의 문집 명칭이 '소여록'인 것 또한 이 때문이다.

3. 求禮 기행

동학 농민전쟁 이후 김제에 정착한 이정직은 이후 전주와 김제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그의 교유 인물 역시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전주에서 김제로 돌아온 후 이정직은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여행을 하게 되는데, 바로 두 차례에 걸친 구례

---

25) 李定稷, 『魚雁珊瑚』, 〈答李石亭〉(乙未十一月二十一日), "聞有所著南匪志或可轉借寓目耶."

26) 李定稷, 『燕石山房未定文藁』 1, 「燒餘錄一」, 〈燒餘錄序〉, "余於詩文, 嗇乎性晝乎工, 委茶膚淺, 大無當於古今, 而好之之篤, 篤於飢者之食, 渴者之飲, 隨所得輒投諸篋, 久則出而讀之, 有不滿意, 旁點累竄而易其藁, 已又繕寫成秩, 而火于甲午之燹. 殆造物者爲余藏拙而余愚甚於文, 迄未能割愛而遠譏, 復從燹後而輯之, 詩共若干, 文亦若干. 期余沒齒, 不知當得幾若干, 名之曰燒餘錄."

여행이다. 당시 구례에는 李沂와 黃玹이 살고 있었다. 이정직은 이기와는 잘 아는 사이였지만, 황현과는 이전에 만난 적이 없었다. 이정직이 구례 여행을 하게 된 계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1894년 여름에 李沂가 黃玹에게 쓴 편지는 이 여행의 계기를 짐작케 한다.

> 요즘 完府(전주)에서 오는 편지가 거의 없어 李石亭이 떠났는지 남아있는지는 아직 알아보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寧齋(이건창) 영감이 아우를 잃었다는 건 저도 풍문으로 들었습니다.27)

이 편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정직과 황현은 만난 적은 없었지만, 오래전부터 서로에 대해 듣고 있었다. 여기에는 李沂가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직은 1895년 봄에 남원을 거쳐 구례를 방문하는데, 그 여정에서 수많은 시문을 짓게 된다. 이정직은 이를 『巽遊錄』이란 이름을 묶고, 『燒餘錄』에 편입하였다. 『巽遊錄』 앞머리에는 서문에 해당하는 글이 실려 있다.

> 乙未(1895)년 春分이 하루 지난 날(2월 26일), 나는 장차 鳳城(求禮)에 가려고 青藜杖을 떨쳐 짚고 남쪽으로 나섰다. 梁在瀅(자는 子潤)과 내가 함께 갔는데, 하루에 2,30리를 갔다. 石文이라고 하는 書童이 詩卷과 짐을 짊어졌다. 翰墨의 인연은 남원의 安和에서부터 시작하여 鰲山을 경유하여 구례의 萬壽洞에 이르렀고, 土金을 거쳐 華嚴寺에 노닐었는데 여러 뛰어난 英才들이 모두 모여 붓끝에 타고난 재주를 드러냈다. 헤어지려다 그러지 못하고 다시 冷泉에 이르렀다. 비록 모이고 흩어짐에 정해진 게 없었지만 아련한 광경을 기뻐하며 그 처음과 끝을 기록했는데, 뜻밖에도 여러 편이 되었다.28)

이정직의 구례 여행에는 晴史 梁在瀅이 함께 했는데, 남원에 살던 玉樵 李麟會가

---

27) 李沂, 『海鶴遺書』 권6, 〈答黃雲卿玹書-甲午〉, “近日完府來信絕少, 李石亭去留尙未探知, 耿耿在意, 而寧齋令哭弟, 沂亦因轉便聞之.”

28) 李定稷, 『巽遊錄』, “旃蒙協洽日躔降婁之越一日, 余將適鳳城, 振藜杖而南出. 梁子潤與余同行, 日二三十里. 書童曰石文, 背詩卷與行李. 翰墨之緣, 自安和始, 由鰲山而至萬壽洞, 歷土金遊華嚴, 群英畢集, 露天巧于筆尖, 欲別未別, 重到冷泉. 縱聚散之無定, 惟喜光景之留連, 記厥終始, 居然累篇. 實由聲氣相感.”

중간에 합류하여 동행하였다. 구례 만수동에 도착한 이정직 일행은 황현과 이기는 물론이고 許奎, 王師瓚, 李炳浩, 吳秉熙, 黃瑗 등 황현의 제자들과 시회를 열고 교유를 하게 된다. 이 방문을 통해 이정직의 이름이 구례에 알려졌고, 황현의 제자들과의 교유도 지속된다. 이후 이정직은 1897년에 또 한 번 구례를 방문한다. 두 차례의 방문을 통해 황현과 본격적인 교유를 시작하였고, 동학농민운동을 겪으면서 사라진 자신의 시문에 대한 새로운 창작 의지를 불태우게 된다. 그런 면에서 구례 기행은 이정직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 할 것이다.

4. 이정직의 저술

이정직은 많은 저술을 남겼지만 어느 것 하나 생전에 간행되지는 못했다. 게다가 이정직이 생전에 완전하게 정리하지 못한 채 사망했기 때문에 현전하는 그의 저술은 체계가 완전하진 않다. 일부는 망실되기도 하였다. 1918년에 간행된『金堤郡誌』<文苑>에 실린 '李定稷' 항목에는 遺稿 30권이 있다고 하였고, 같은 책에 실린 宋基冕의 <李石亭本傳>에도 유고 30책이 가장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정직의 저술 목록을 기록한 것으로는 제자인 송기면의 <行狀>과 최영성의 <石亭李定稷遺藁解題>가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출전	저술	비고
<行狀>-宋基冕	『燕石山房藁』,『詩經註解』,『算學傳授』,『詩學證解』,『刊誤精選』,『字音考』,『轉辭活譯』	1922년
<석정이정직유고해제> -최영성	『燕石山房藁』,『詩經日課』,『詩經註解』,『詩學證解』,『蘇詩註選』,『盛唐正音』,『刊誤精選』,『谿陽詩藁』,『作家指南』,『尺牘易知』,『字音考』,『轉辭活譯』,『尙書大全』,『近代宗匠』,『算學傳授』,『星曆』	2001년

이정직의 저술은 크게『燕石山房藁』와 기타 저술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위 두 사람의 기록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영성의 기록은 현재 후손가에 전하는 서적을 모두 저술 목록에 포함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단순한 抄錄本인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의 시집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9)

서명	책수	현전여부	비고	저술여부
『詩經日課』	3	현전	표제는 ‘詩傳日課’	○
『詩經註解』	미상	실전		○
『詩學證解』30)	미상	실전	1903년에 지은 <詩學證解序> 문집 수록	○
『蘇詩註選』	4	현전	내제는 ‘劉須溪批點東坡詩註選’	○
『盛唐正音』	1	현전	일부만 현전	×
『刊誤精選』	2	현전	원본은 1책만 현전. 전사본 2책 현전.	○
『谿陽詩藁』	1	현전	『才物譜』 편찬한 韓山 李晩永(1748~1817)의 유일본 시집.	×
『作家指南』	1	현전	李建昌「南遷記」, 李沂의 글, 黃玹「淡翠山房集」	×
『尺牘易知』	1	현전		○
『字音考』	미상	실전		○
『轉辭活譯』	미상	실전	‘轉辭活譚’의 오류	○
『尙書大全』	1	현전	전사본	×
『近代宗匠』	1	현전	明淸代 大家 文抄	×
『算學傳授』	미상	실전		○
『星曆』	미상	미상		×

그런데 이정직의 저술임에도 누락 된 것도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서명	책수	현전여부	비고	소장처
『諸家文英』	미상	실전	<書諸家文英後>가 문집에 수록됨	
『墨藝金鏡』	1	현전	권수에 ‘石亭山人輯’ 기록 있음	이종석
『南匪志』	미상	실전	황현의 편지에 보임.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이정직의 저술은 시문집과 기타 저술로 나눌 수 있다.

29) 단순한 초록본의 경우 저술로 보지 않았다.
30) 일부가 개인소장으로 전하고 있다고 한다. 아직 실물을 확인하진 못했다.

기타 저술의 경우에는 註釋이 포함된 編著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한편『燕石山房藁』의 경우에는 시고와 문고로 분류하고 있는데, '未定稿'란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최종 탈고본이 아님을 표시하고 있다. 먼저 구성 현황을 살펴보겠다.

책수	燕石山房未定詩稿		燕石山房未定文藁	
	표제	권수제	표제	권수제
1	燕石山房未定詩草一	燒餘錄卷之一	燕石山房未定文藁一	燒餘錄一
2	燕石山房未定詩藁第二	燕石山房未定詩藁第二	燕石山房未定文藁二	없음
3	燕石山房未定詩藁第三	燕石山房未定詩藁	燕石山房未定文藁三	燕石山房未定文藁
4	燕石山房未定詩藁第四	燕石山房未定詩藁	燕石山房未定文藁四	文藁第四
5	燕石山房未定詩藁第五	燕石山房未定詩藁第五	燕石山房未定文藁五	燕石山房未定文藁
6			燕石山房未定文藁六	燕石山房文藁
7			燕石山房未定文藁七	燕石山房文藁
8			燕石山房未定文藁八	燕石山房未定文藁八
9			燕石山房未定藁 別集	研經山房未定藁 燕石山房未定藁
10			燕石山房未定藁 別集一	燕石山房未定文藁別集 (詩經日課)
11			燕石山房未定文藁五	燕石山房未定文藁 (寒暄小品)
잔본				『燕石山房別藁』 「算學正負術詳解」
잔본				『燕石山房未定文藁內集』 「傳家錄」

앞서 살펴봤듯이 이정직은 동학농민운동의 혼란 속에서 이전에 지은 글들을 모두 잃어버렸다. 그래도 다시 글을 짓기 시작한 이정직은 자신의 문집을 '燒餘錄'이라 명명하였다. 이후에도 시문이 계속 늘어나자, 이정직은『燕石山房未定詩稿』와『燕石山房未定文稿』로 구분하여 정리한 듯하다. 또한『燕石山房未定文稿』의 '詩經日課'와 '寒暄小品'의 경우처럼 일반 문장과 구분되는 별도의 저술들은 '別集'으로 분류하였고,『刊誤精選』의 內題에 '燕石山房雜著藁'라 한데서 볼 수 있듯이 '雜著藁'라 하기도

하였다. 위 표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도 후손가에는『燕石山房別藁』가 있는데 여기에는「算學正負術詳解」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燕石山房未定稿別集一』에는 <新舊折衷末篇>만 포함되어 있다. '末篇'이란 문구를 통해 일부만 남아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보면 이정직은 자신의 저술을 '詩藁', '文藁', '雜著藁', '別藁', '別集'으로 분류를 시도한 듯하다. 하지만 이 또한 미완으로 끝나고 말았다. 게다가『燕石山房未定文稿』의 경우 일부 망실된 것이 확인된다.

이정직 사후 그의 문집은 3책으로 간행되었다. 宋基冕을 중심으로 한 제자들과 지역 문인들이 자금을 모아『石亭集』7권 3책이 간행되었는데, 자금이 부족했던 탓에 문집 전체가 간행되지 못하고 選集에 그치고 말았다. 더욱이 이정직이 생각했던 분류 체계와는 달리 전통적인 문집의 형태로 간행되고 말았다. 특히 이정직의 말년 제자인 鄭魯湜은 발간 당시 '시에 대한 교정은 滄江 金澤榮의 붓으로 刪削'했다고 증언하고 있다.[31] 이정직은 김택영과 직접 교유한 적은 없지만, 황현의 문집을 통해 이정직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가 이정직의 시와 글씨에 관해 쓴 글이 한 점 전하고 있다.

> 예전에 황매천의 문집에서 그가 李石亭의 시는 杜甫를 배웠는데 書法은 시보다 더욱 뛰어나다고 칭찬한 걸 보았다. 이제 石亭의 시를 읽어보니 두보와 같은지 여부는 잠시 밀쳐두고 논할 게 없지만, 또한 한 때의 苦心人이었다. 그의 글씨를 한번 보고 싶었지만 가져올 수 없어 안타까웠다. 한국에는 솜씨 있는 각수가 드물어 옛 글씨를 새김에 진면목을 잃는 경우가 많다. 어찌하면 그의 글씨를 중국에서 새겨 널리 전파할 수 있을까? 隆熙 紀元 六年 壬子(1912) 7월 20일에 淮南逋士 金澤榮 于霖은 발문을 쓴다.[32]

이 글을 보면 鄭魯湜의 증언이 근거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정직의 모든 저술이 '全集'의 형태로 정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31) 鄭魯湜,『朝鮮唱劇史』, 朝鮮日報社, 1940, 15면.

32) 金澤榮, 〈跋文〉(강암서예관 소장, 필사본), "往於黃梅泉集中, 見其稱李石亭詩學杜甫, 而書法尤妙於詩. 今讀石亭詩, 其似杜與否姑置勿論, 而亦一時之苦心人哉. 其書甚欲一見而不可致之爲可恨. 韓邦刻手罕有妙者, 古書之刻, 多失其眞, 安得使其書刻於中州而廣傳之也. 隆熙紀元之六年壬子七月二十日淮南逋士金澤榮于霖跋."

Ⅲ. 이정직의 교유 인물

이정직은 梅泉 黃玹(1855~1910), 海鶴 李沂(1848~1909)와 함께 湖南三傑[33]로 불리고 있다. 황현과 이기가 이정직의 삶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앞서 살펴봤듯이 이정직의 생애에서 1894년 이전의 기록은 아주 드물다. 그때까지의 모든 기록들이 불탔기 때문이다. 현전하는 자료 대부분은 1894년~1910년까지 17년간의 기록이다. 따라서 1894년 이전의 교유 인물 및 교유 활동에 관한 정보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1894년 이후 이정직 생활은 대부분 全州와 金堤를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그의 교유관계 또한 시기와 지역적 제한 속에서 살펴볼 수밖에 없다. 梅泉 黃玹과 海鶴 李沂를 제외한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李鳳九

기존 연구에서 이봉구는 이정직을 연경에 수행원으로 데려간 인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봉구에 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빚어진 오류다. 1958년에 간행된『完山誌』<名臣>조에는 이봉구에 관한 다음 기록이 있다.

> 李鳳九는 鳳山人이다. 高宗 壬午(1882)에 문과에 급제하여 參議를 지냈다. 갑신정변 때 특별히 親軍別後營使 兼工曹判書가 되었다. 吏族으로 출세하여 文武의 重臣이 되었다.[34]

---

33) 湖南三傑이란 용어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정직 선생의 행장이나 전기에는 이런 용어가 사용된 적이 없고, 1918년과 1956년에 간행된『金堤郡誌』및 1956년에 간행된『合刊碧城誌』등에도 이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제일 빠른 기록은 1970년에 간행된『명문의 고향』(전북매일신문사 간행)에 보이는 〈金堤 李定稷〉의 기록이다. 그런데 이 책에 실린 글은 1967년 5월부터 10개월간 全北每日에 연재되었으므로 실제 이 용어가 사용된 것은 신문 연재 시점일 것이다. 그리고 1978년 1월 24일자 全北新聞의 〈續新全北記〉라는 코너에는 李康五 교수의 '石亭 李定稷의 實學'이란 글이 실렸는데, 여기서 이강오 교수는 '湖南三絕'이란 용어를 쓰고 있다.(이상의 내용들은 이정직 서생의 후손인 이종석 교수 소장의 신문 스크랩 자료를 근거로 필자가 확인한 것이다) 이후 여기저기서 근거 없이 재인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34) 李道衡,『完山誌』,〈名臣〉, "李鳳九. 鳳山人. 高宗壬午文科歷參議. 甲申政變特爲親軍別後營使兼工曹判書. 以吏族發身, 爲文武重臣."

1958년 당시만 해도 전주에서는 이봉구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더구나 그는 士族이 아닌 吏族으로 출세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李鳳九(1843~1887)는 본관이 鳳山으로 전라도 興德에 살았으며, 1882년에 별시 문과에 합격했다. 부친 李翊奇(1818~1890)[35]는 1880년에 進士가 되어 敦寧府都正을 지냈다. 이봉구는 1884년 갑신정변 때 공을 세워 後營使 겸 포도대장, 이조참판, 海防總管 등을 역임하였다. 그러나 1885년에는 趙鎭禹의 탄핵을 받아 함경도 洪原에 유배되기도 했다. '본래 미천한 하층 출신으로[本以卑微崛起下士] 과거에 합격한 지 얼마 안 되어 淸職을 두루 지냈으며 국난을 틈타서 스스로 내세울 만한 공로가 없는데도 卿大夫의 반열에 껑충 뛰어오르고 외람되게 대장의 자리에 올라서' 방자하게 불법을 일삼는다는 게 이유였다.[36] 이봉구와 관련해서는 문헌 기록이 거의 없는데, 간찰 한 점이 현전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봉구와 이정직의 교유에 관한 중요한 기록이 남아 있다.

> 일전에 亞銓(참판)이라는 영광스런 직함을 받았고, 아우 또한 恩賜를 받았습니다. …… 石亭은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과연 답장을 쓰지 못할 정도로 겨를이 없습니까? 이 뜻을 전해주기 바랍니다. 바빠서 갖추지 못합니다. 1885년 3월 8일 李鳳九[37]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이봉구는 1885년 3월 5일에 吏曹參判에 제수되었다. 또 그의 아우 李鶴九(1853~1922)는 2월에 실시된 會試에서 進士에 합격했다. 이는 이봉구의 공적이 많으므로 그의 아우를 특별히 합격시키라는 고종의 명에 따른 것인데,[38] 당시 합격자 명단이 실린 『崇禎紀元後五乙酉式年司馬榜目』[39]의 앞부분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실려 있다. 당시 이봉구의 위세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편지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아울러 이봉구는 石亭이 어떻게 지내며, 답장을 쓰지

35) 『崇禎後五庚辰增廣別試司馬榜目』에는 이익기의 생년이 '戊辰'으로 되어있으나, 『鳳山李氏世譜』에는 '戊寅'으로 되어있다. 여기서는 族譜의 기록을 따랐다.

36) 『朝鮮王朝實錄』, 〈고종22년 7월 28일조〉. "總管海防事務李鳳九, 本以卑微崛起下士, 登科未幾, 歷敭淸華, 夤緣國難, 無功自伐, 驟躋卿班, 濫登戎壇, 兼管討捕, 手握重兵."

37) 〈李鳳九 簡札〉(개인소장, 필사본), "日前蒙亞銓之恩啣, 家弟亦蒙恩賜. …… 石亭近作何狀, 果無暇未及修答, 此意傳布爲望耳. 擾不備謝禮. 乙酉三月八日 李生鳳九 拜又拜."

38) 『승정원일기』, 〈고종22년 2월 21일조〉.

39) 『崇禎紀元後五乙酉式年司馬榜目』, 整理字, 189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못할 정도로 바쁘냐고 묻고 있다. 이는 이정직의 족보 기록을 가지고 유추해볼 때, 이정직에게 관직을 주려고 했던 게 아닐까 한다. 이조참판의 자리에 올랐으니 어느 정도의 관직은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보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때 이정직은 이봉구의 제안을 거절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정직은 이봉구 사후 그의 부인 徐氏의 회갑을 맞은 1901년에 글을 한 편 지었는데, 여기에는 당시의 정황이 잘 정리되어 있다.

> 나는 大奎의 先公과 서로 막역한 사이였다.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밥을 먹은 게 10여년이나 되었는데, 公은 관직에 뜻을 두어 나라가 위험한 재난을 당했을 때 위험을 무릅 쓰고 앞장서서 아주 큰 공을 세웠지만, 나는 시골에서 뜻을 얻지 못하고 쓸쓸히 지내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공이 추천해서 끌어주지 않는다고 의심했지만, 그러나 나는 평소 좋아하는 게 있어서 내 뜻을 분산시키고 싶지 않았다. 공께서는 이를 잘 알기에 나를 억지로 끌어내지 않았다. 몇 년이 되지 않아 공은 세상을 떴는데, 당시 大奎는 나이가 어려 겨우 응애응애 하며 우는 때가 지났었다.[40]

'大奎'는 이봉구의 아들 李石峴(1882~?)의 字이고 호는 壽堂이다. 그는 이정직의 문집이 간행될 때 京城에서는 유일하게 부조에 참여한 인물이다.[41] 이 글을 보면 이정직과 이봉구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이봉구 사후에도 아들과 연락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42] 이봉구 관련 내용은 그의 족보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43]

> 자는 文演, 호는 壺隱, 癸卯(1843) 5월 16일생이다. 高宗 辛巳(1881)년[44]에 文

---

40) 李定稷, 『石亭集』 권4, 〈李大奎慈夫人徐氏六十一歲壽序〉, "不佞與大奎先公, 相視莫逆. 共榻而寢, 對卓而食, 盖十年所, 而公置身青雲, 値國家危難之日, 挺身冒刃, 樹絕大之業, 而不佞棲息草萊, 作崎嶔歷落之狀, 人或疑公不能推引, 然不佞有素癖, 不肯分志. 公知之深, 不能强不佞也. 不幾年而公謝世, 當是時, 大奎年穉小, 僅免呱呱泣也."

41) 李定稷, 『石亭集』, 〈石亭集同刊錄〉.

42) 문집에는 이 밖에도 이석현이 중국에서 서적을 구입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서 쓴 시가 전하고 있다(『石亭集』 권2, 〈聞李大奎石峴駕海舶購書于京師喜而有賦〉).

43) 족보 기록을 통해 이봉구의 몰년이 1887년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實錄』이나 『承政院日記』에 보이는 1887년 이후의 이봉구 관련 기록은 동명이인의 것이 명백하다.

44) 이봉구는 1881년 秋到記에서 '講'으로 直赴殿試되었기 때문에, 족보에서는 1881년에 문과에 오른

> 科에 합격하였고, 壬午(1882)년에 承文院正字・校理에 제수되었다. 甲申(1884)년에는 다시 同副承旨가 되었고, 여러 번 요직으로 자리를 옮겨 吏曹參判에 이르렀으나, 조정의 신하에게 讒訴를 입어 함경도 洪原에 유배되었다. 임금께서 후회하시고 해배하여 복직시켰다. 丁亥(1887)년 7월 21일에 병으로 집에서 돌아가셨다. 임금께서 부음을 들으시고 아주 슬퍼하셨다.[45)]

이상의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이봉구가 이정직을 연행의 수행원으로 데려갔거나, 그의 힘으로 연경에 보냈다고 보기엔 시기가 맞지 않는다. 이정직의 『족보』에 기록된 이봉구와의 인연으로 인해 그런 오해가 빚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봉구 사후에는 이봉구의 아들 이석현이 이정직과 지속적인 교유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2. 蔡敬默

蔡敬默(1850~?) 또한 이정직과 교유가 확인되는 인물이다. 다만, 그에 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게 없었는데, 최근에 그가 편찬한 『豊沛集錄』이 발굴되어 영인 간행되면서,[46)] 그에 관한 정보가 조금은 확인되었다. 이에 따르면 그의 본관은 平康, 자는 義哉, 호는 西湖居士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로 전주지역에서 활동한 문인이다. 그는 서화에 관심이 많아 서화 수장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가 소장했던 서화에 찍혀 있는 인장 중에는 <蔡氏海虹堂審定金石文字>가 있는데,[47)] 이를 통해 그의 당호가 海虹堂이었음을 알 수 있다. 曺錫輿는 <蔡氏孝烈旌閭記>에 붙인 글에서 다음 기록을 남겼다.

> 西湖 蔡敬默은 우리 집안과 4世의 舊交가 있다. 어려서부터 글씨에 빠져서

것으로 기록하였다.

45) 『鳳山李氏世譜』, "字文演號壺隱癸卯五月十六日生. 高宗辛巳登文科, 壬午除承文正字校理, 甲申又拜同副承旨, 累遷萃要, 至吏曹參判. 被廷臣讒, 定配于咸鏡洪原矣. 上後悔解配復職, 丁亥七月二十一日, 病卒于第. 上聞訃極悲."

46) 蔡京默, 『豊沛集錄』(전주학총서 50), 전주역사박물관, 흐름출판사, 2020.

47) 칸옥션 12회 경매(2019.9월)에 출품된 우암 송시열의 글씨엔 채경묵의 題識가 있는데, 여기에 위 인장이 찍혀있다.

> 善書로 서울과 시골에서 이름이 났다. 또한 난초까지도 잘 그렸다. 나는 일찍이 그의 필법이 굳세고 古意가 있는 것을 좋아했다. 내가 몇 해 전에 중국에 사신을 갔는데, 그의 글씨 몇 축을 가져가서 명사들에게 보였더니 본 사람들이 모두 탄복해 마지않으며 말했다. "東坡의 한 유파가 지금 해동에 있다." 그 조예의 공교함과 깨달음의 재주를 또한 알만할 뿐이다.[48]

채경묵이 글씨로 이름이 났고, 난초를 잘 그렸음을 알 수 있다. 조석여가 중국에 사신으로 간 것은 1877년 10월 27일이다. 조석여는 冬至兼謝恩使의 正使로 연경에 다녀왔다.[49] 또, 이정직이 채경묵 부모의 회갑을 기념하여 쓴 시 14수와 序文이 실려 있는 서첩이 전하고 있는데, 서문에는 다음 기록이 있다.

> 西湖는 글씨로 한 시대에 이름을 떨쳤다. 그래서 서울과 충청도, 전라도의 관료와 선비들이 시를 지어 축하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나도 외람되지만 교유하는 사람이라 시를 한 수 지어 축하했다.[50]

이를 통해 이정직과 채경묵의 교유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정직의 다른 시를 통해서는 靄春 申命衍(1809~1886)의 병풍, 香壽 丁學敎(1832~1914)의 楹聯, 荷江 曺錫輿(1813~?)의 글씨 등이 축하 선물로 보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명연의 그림과 정학교의 글씨가 이정직과 그의 제자들 사이에 유통된 점으로 볼 때 이들의 영향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라 할 것이다. 젊은 시절 이정직 서화의 뿌리를 탐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교유 인물이다.

---

48) 蔡京默, 『豊沛集錄』(전주학총서 50), 전주역사박물관, 흐름출판사, 2020. "西湖蔡敬默, 與吾家有四世之舊. 自幼少, 癖於鉤戈, 以善書名於京鄕. 又旁通畵蘭. 余嘗愛其筆法遒勁有古意. 余於年前奉使中國, 携其書數軸, 以示諸名士, 見者皆歎賞不已, 曰'東坡一派, 今在海東', 其精詣之工, 妙悟之才, 亦可知耳."

49) 이 때 이정직의 나이는 37세이다. 조석여와 채경묵과의 관계를 감안할 때 이정직이 수행원으로 연행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기존 기록에서는 이정직의 연행 시기를 28세로 기록하고 있어 시기가 맞지 않는다.

50) 李定稷, 『蔡西湖大人夫婦周甲壽詩帖』, "西湖以筆傾一世, 故京湖卿士, 無不以詩鋪張之. 不佞亦忝在交遊, 以一絕賀之."

3. 鄭寅驥

鄭寅驥의 자는 伯善인데 후에 于稱으로 바꿨고, 호는 鶴山이다. 1958년에 간행된 『完山誌』 <文藝>조에는 정인기가 실려 있다.

> 호는 鶴山이고 본관은 東萊이다. 才藝를 하늘이 낸 인물이라 文章이 옛 사람에 핍진하여 명성이 고을 안에 자자했지만 불행하게도 일찍 죽었다.[51)]

그의 활동 지역이 전주였음을 알 수 있다. 李沂가 정인기에게 보낸 편지에는 다음 언급이 있다.

> 저녁에 조용히 호남의 인물을 이야기할 때면 나는 꼭 李馨五(李定稷), 黃雲卿(黃玹), 朴克柔와 그대로 대답합니다.[52)]

매천 황현 역시 <觀水堂記>에서 정인기를 언급하고 있다.

> 나는 젊은 시절 향시에 합격하고 서울에 과거보러 올라갈 때 全州로 길을 나선 게 몇 차례 있었다. ……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렇게 萬戶는 되는 큰 도시인데다 산천이 웅장하고 넓으며 또한 수백 년이나 오래도록 교화되고 잘 사는 은택을 입었으니, 그 안에 忠信하고 才德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세상 풍속에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이 없을 수 없을 텐데, 나만 듣지 못한 것일까? 오랜 시간이 지나서 과연 그 고을의 선비 肯農 朴準弼, 鶴山 鄭寅驥와 알게 되었다. 두 사람은 文詞가 훌륭하여 湖南의 雙鳳이라 추켜세울 만하였다.[53)]

---

51) 李道衡, 『完山誌』, 〈文藝〉, "鄭寅驥. 號鶴山, 東萊人. 才藝出天, 文章逼古, 名振省內, 不幸早沒."

52) 李沂, 『海鶴遺書』 권6, 〈與鄭伯善寅驥書-癸巳〉, "每晨夕之間, 從容語及湖南人士, 僕必以李馨五黃雲卿朴克柔及足下爲對."

53) 黃玹, 『梅泉續集』 권1, 〈觀水堂記〉, "余少日, 計偕上京師, 路出全州者, 前後凡幾度. …… 然私竊以爲以若萬戶大府, 山川雄闊, 又被累數百年久化養息之澤, 自不無忠信才德之民之不爲謠俗所移者, 而獨余未之聞耶. 久後果得其州士朴肯農準弼鄭鶴山寅驥相識. 二子者文詞蔚然, 足推湖南雙鳳."

이정직은 정인기가 사망하자 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내가 세상에서 즐겨하는 것은 없다. 즐겨하는 것은 오직 文字뿐이다. 중년 이래로 于稱이 손수 편찬한 것이 갑오년 난리 중에 재가 되어버렸다. 그 뒤로 얻은 것 또한 수십 권이나 되지만 모두 초고 상태에 있다. 일찍이 수정하는 일을 우칭에게 부탁하였고, 우칭 역시 이를 자신의 일로 여겼으니, 내가 죽기도 전에 우칭이 가버릴 줄을 어찌 생각이나 했겠는가? 아! 나는 장차 이 일을 누구에게 부탁해야 할까?[54]

이정직과 정인기의 관계를 대변하는 글이다. 이정직 문집을 정리하고 교정하던 일을 도맡아 했던 것이다. 다만, 그의 문집이 현전하지 않아 이정직과의 관계를 깊이 考究하기는 어렵다.

4. 李建昌

寧齋 李建昌(1852~1898)은 조선 말기를 대표하는 문인이다. 따라서 그와 교유를 한다는 것은 중앙에 문명을 떨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대표적으로 매천 황현은 서울에서 이건창과 교유를 통해 중앙 문단에 이름을 알렸다. 그런데 이건창은 두 번에 걸쳐 湖南에 유배된다. 먼저 1893년에는 전라도 寶城에 유배되었다가 풀려났고, 1896년에는 古群山島로 유배됐다가 풀려났다. 두 번에 걸친 이건창의 호남 유배는 호남 문사들에겐 그와 교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수많은 문사들이 그와 교유하려고 하였다. 이정직 역시 이건창과 교유를 하는데, 한번은 직접 만났고, 또 한 번은 편지만 주고받았다. 이정직이 이건창과 만났다는 기록은 『巽遊錄』에 기록되어 전하고 있다.

54) 李定稷, 『燕石山房未定文藁』第七, 〈祭鄭于稱文〉, "吾於世無所嗜, 所嗜者惟文字, 而中年以來, 于稱所手編, 灰於甲午之燹, 自其後所得, 亦不下數十卷, 而皆在艸藁. 嘗以修定托之于稱, 于稱亦以此自任, 豈意于稱之逝, 在於吾之未死也耶. 嗚呼, 吾將托此事於何人哉."

> 지난해에 寧齋 李承宣(李建昌)이 용서받아 돌아가면서 전주의 여관으로 나를 찾아와 만나서 새벽까지 이야기했는데, 李海鶴(李沂), 黃梅泉(黃玹), 奇植齋(奇宰, 1854~1921)의 문장을 극찬하였다. 海鶴은 본디 나와 막역한 사이지만, 黃梅泉과 奇植齋는 내가 아직 만나지 못했다.55)

당시만 해도 이정직은 황현과 기재를 만나지 못한 상황이었다. 기재와는 끝내 교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황현과는 구례를 방문하여 만나게 된다. 이건창이 전주에 있던 이정직을 방문한 것은 이기를 통해 이정직에 대해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1893년 8월에 보성으로 유배된 이건창이 풀려난 것은 1894년 2월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난 것은 그 이후가 될 것이다. 이후 이건창은 1896년 5월에 古群山島에 유배되었다. 이 때 이정직이 그 헤 7월 4일에 이건창에게 쓴 편지가 전하고 있다.

> 보내주신 귀한 편지를 받아 바삐 열어 읽어보고는 영감께서 다시 바닷가에 유배되었단 걸 알았습니다. 함부로 시국을 헤아려보고는 반드시 이런 일이 있으리라 생각은 했지만, 덕망 있는 선비는 곤궁에 처하여도 마치 통달한 듯 하는 것이니 어찌 이런저런 말씀을 올리겠습니까? 다만, 먼 길 무더위에 지쳐서 건강을 해칠까 마음으로 염려했습니다. 옛날의 '百謫何傷'이란 구절을 읊자니 저도 모르게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지난봄에 지팡이 하나에 아이 하나를 데리고 萬壽洞 黃梅泉을 찾아갔다가 6~7일 동안 머물면서 영감의 詩文 50~60쪽을 手寫하여 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읽지 않는 날이 없으며 學徒 4~5명과 古詩文을 논할 때 반드시 이를 가지고 軌範을 삼고 있으며, 모든 세상에 대한 생각은 생각 밖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올 정월에는 喘疾에 걸려 거의 죽다가 가까스로 소생했지만, 기침이 괴롭게도 없어지지 않고 하루에도 6~7차례 일어나고, 한번 일면 꼭 열 몇 번씩이나 이어집니다. 형체는 뼈만 남아 파리한데 집이 가난하여 약을 댈 수가 없자 친지들도 피하게 되니 여장을 꾸려 全州에 거처를 마련했는데, 지금도 드러누워 있습니다. 이제 황송하게도 불러주셨는데 억지로 일어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헤아려보니 이미 배가 떠났을 것이니 마음이 실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혹시 제 병이 좀 나으면 謫所가 하늘에 있는 것은

---

55) 李定稷, 『巽遊錄』, "往年寧齋李承宣蒙宥將還也, 訪我于完之旅, 晤言達曙, 極稱李海鶴黃梅泉奇植齋之文章, 而海鶴固與吾莫逆, 惟黃梅泉奇植齋, 吾未之見矣."

> 아니니, 제 마음속에서 밝게 빛나며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自愛하시고 편찮은 몸이지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갖추지 못하고 삼가 답장을 올립니다. 丙申(1896) 7월 4일. 生 李定稷 再拜.[56]

고군산도에 유배된 이건창은 이정직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이정직은 몸이 아파 거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편지를 보내 이건창의 건강을 축원할 뿐이었다. 아울러 한 해 전에 구례로 황현을 방문한 소식을 전하면서, 이건창의 詩文을 50~60쪽 베껴와 학도들과 古詩文을 논할 때 표준으로 삼는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 편지가 이건창에게 전해졌는지는 알 수 없다. 이건창이 유배된 지 한 달 만에 해배되기 때문이다. 이정직은 이때 이건창을 만나지 못한 게 못내 아쉬웠던지 1896년 10월 16일에 황현에게 편지를 썼다.

> 寧齋께서 바다로 갈 때 제가 마침 전주에 있었고 사면되었을 때는 길이 또 어긋났습니다. 단지 편지만 한두 차례 왕래하였고 결국 한 번 뵙지 못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57]

이로부터 2년 뒤에 이건창이 사망하기 때문에 이정직과 이건창은 다시 만나지 못했고, 편지로 소식을 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짧은 만남과 몇 번의 편지를 주고받은 게 교유의 전부였지만, 이후에도 이정직은 이건창의 시문을 탐독한다. 이정직의 시문이 이정직에게 큰 영향을 준 것은 자명한 일이다.

---

56) 〈李定稷 簡札〉(개인소장, 필사본), “蒙委辱寵翰, 忙手披讀, 伏審令體, 又作海上之駕. 妄揣時狀, 謂必有此行, 士君子處困若亨, 何待奉陳. 但, 千里炎潦撼頓有損節, 爲此實心獻慮, 誦昔日百謫何傷之句, 不覺銷魂而已. 生, 去年春, 一筇一童, 訪黃梅泉于萬壽洞, 留晤六七日, 手寫令執詩文五六十頁歸來. 盖無日不跪讀, 且與學徒四五人, 論古詩文, 必以此爲軌範, 一切世念, 付之度外矣. 乃今年正月, 得喘疾, 幾殊僅甦, 而咳嗽苦未除, 日六七作, 作必連十數聲, 形骸銷鑠, 家貧無以繼藥餌, 爲親知所避, 治旅棲于全州, 方亦委頓. 玆者承有俯速, 不惟强作之不能, 且揣業已駕船, 私心悵恨. 倘賤疾少間, 則惠州不在天上, 區區方寸, 炯然不滅. 惟伏希自愛, 愼起居萬安, 不備謹謝上. 丙申七月初四日 生 李定稷 再拜.” “寧齋先生回鑑 石亭生拜緘”

57) 黃瑗, 『天涯比隣集』, 〈石亭答黃梅泉書〉(丙申十月旣望), “寧齋駕海時, 弟適在完, 及其蒙宥也, 路又相違, 只有一二書來往, 竟失一奉, 悵恨無已.”

5. 鄭寅羲

鄭寅羲(1849~1917)는 이정직의 교유 인물 중에서 독특하다. 그는 靑陽郡守로 재직할 당시 洪州에 倡義所가 설치되자 의병대장으로 추대된 金福漢을 중심으로 홍주 의병이 봉기하자 여기에 참여한 인물이다. 1896년 홍주 의병이 해산되자 정인희는 청양군 내에 창의소를 따로 설치하고 선봉장으로 공주부를 공격하였다. 비록 패배하여 해산되었지만, 현직 관료가 홍주 의병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58) 또한 정인희는 羅喆과 함께 檀君敎를 창설하여 구국운동에 앞장섰던 鄭薰謨(1868~1943)의 부친이기도 하다. 정인희가 이정직과 언제부터 교유하게 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이정직에게 보낸 편지에서 李建昌의 사망 소식에 대해 궁금해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볼 때, 1898년 무렵에는 이미 서로 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정인희는 1904년에 萬頃郡守에 부임하는데, 이를 통해 더욱 가깝게 교유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직에게 보낸 편지 50여 통이『嵎堂眞墨』이란 이름으로 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정직에게서 志士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황현과의 교유 때문만은 아니다. 정인희와의 교유는 이정직의 사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6. 기타

이정직의 제자 및 교유 인물 대부분은 전라도 김제, 만경, 전주, 남원, 구례 등에 거주하는 인물들이다. 이정직의 문집에는 수십 명의 문사들이 등장하지만, 문집을 남겼거나 서화에 뛰어났던 인물을 지역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58) 이은숙,「1905~1910년 홍주 의병운동의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2004, 18~19면.

지역	성명	생몰년	본관	字	別號	비고
金堤 및 萬頃	李根文	1846~1931	新平	文參	白坡	『白坡遺稿』(3권 1책)
	崔輔烈	1847~1922	全州	國明	篔亭	『篔亭集』(4권 2책)
	趙周昇59)	1854~1903	金堤	章日	碧下	‘石石碧竹’
	趙方淳	1854~1917	金堤	可日	碧農	『金剛山遊行錄』(1917년 간행)
	趙秉憲60)	1876~1962	金堤	允章	悅雲, 彝堂	科名은 ‘大憲’. 조방순의 아들
	朴奎晥	1868~1916	密陽	卿執61)	表園	書畵家
	宋基冕	1882~1956	礪山	君章	裕齋	『裕齋集』(6권 4책)
	金然泰	미상	金堤		止齋	『止齋詩集』(2권 2책)
	金然灝	미상	金堤	文擧	石田	『無爲艸』
	姜東曦	1886~1963	晉州	榮燦	吾堂 超然齋	『超然齋未定藁』
	鄭魯湜	1891~1965				『朝鮮唱劇史』
南原	李漢龍	1862~1926	陜川	致見	錦石, 唐川	『唐川集』(8권 6책)
	李學容	미상	星山	敬佑	華雲	『華雲詩集』(2권 1책)
	李基纘	1841~1905	廣州	聖道	荷汀	『廣陵家稿』「荷汀府君詩」
	李成會	1863~1898	廣州	公執	玉樵	李麟會와 동일인 『廣陵家稿』「玉樵府君詩」
	李秉珪	1882~?	廣州	希瑞	守陽齋	『廣陵家稿』「家君守陽齋初稿」
	李秉龍	1885~?	廣州	元瑞	小樵	李秉茂와 동일인 『廣陵家稿』「叔父小樵初稿」
求禮	王師瓚	1846~1912	開城	贊之	小川	『開城家稿』
	許 奎	1861~1931	陽川	周彦	卯園	
	黃 瑗	1870~1944	長水	季方	石田	
	李炳浩	1870~1943	全州	善吾	白村	
	吳秉熙	1871~1939	寶城	光國	翠軒	

59) 趙周昇은 趙在甲이란 이름으로도 활동하였다. 최남선은『尋春巡禮』에서 ‘石亭의 돌 그림과 碧下의 대나무 그림’이 유명하다며, ‘石石碧竹’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60) 석정이 조방순과 조병헌에게 보낸 편지 수십 통이 현전하고 있어 이정직과의 교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61) 기존의 모든 기록이 ‘鄕執’으로 되어있으나, ‘卿執’이 맞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매천 황현의 제자들 이외엔 대부분 전라북도의 인물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詩文과 書畫를 중심으로 이정직과 교유하였다. 그 때문에 이들 중 일부는 이정직 사후에 艮齋 田愚의 문하에 들어가 성리학을 공부하기도 하였다.

Ⅳ. 맺음말

爲堂 鄭寅普(1893~1950)는 황현과 이정직의 시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어떤 사람은 아주 눈에 확 들어오게 광채가 나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며, 어떤 사람은 담담하고 고요하며 평탄한 걸 조금씩 쌓고 불려 완곡함을 만들어 내는데, 그 조예의 깊이는 피차 같은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늘 앞의 것은 정교하다며 좋아하고, 뒤의 것에 대해서는 평범하게 본다. 이것은 단지 밖에 드러나는 것에 '어두움'과 '밝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근세의 명인 중에서 黃梅泉의 경우 한 번 바라보기만 해도 광채가 사방으로 뻗치는데, 李石亭은 담담해서 오랫동안 그 정화를 음미한 뒤에야 그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사망한 후 모두 문집이 간행되었지만, 石亭의 명성이 梅泉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62)

두 사람 모두 뛰어난 시인이었지만 이정직의 명성이 황현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 두 사람의 삶의 궤적을 살펴보면 정인보의 평이 적확함을 알 수 있다. 이정직 삶의 지향에서 '담담함'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담담한 이정직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삶의 궤적과 함께 교유 인물을 살펴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논고에서 필자는 기존 연구에서 언급했던 이정직의 생애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여 오류를 시정하고,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교유 인물들을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李建昌, 鄭寅羲에 관해서는 처음으로 소개하는 내용이다. 蔡敬默, 鄭寅驥에 관해서는 추가 자료가 출현하기를 기대해 본다. 그 밖에도 지역에서

62) 鄭寅普, 『廣陵家稿』, 〈廣陵家稿序〉.

활동한 문사들 또한 이정직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다. 이정직 연구를 심화시키고 연구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는 이들과의 관계를 밝히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선은 그 윤곽을 제시하는 데 그쳤고, 개별 인물들에 관한 상세한 연구는 후일로 미뤄둔다.

투고일: 2021.07.20 심사일: 2021.08.19 게재확정일: 2021.09.03

참고문헌

『承政院日記』, 국사편찬위원회 웹
『朝鮮王朝實錄』, 국사편찬위원회 웹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서울대학교(http://e-kyujanggak.snu.ac.kr)
왕실도서관 디지털 아카이브, 한국학중앙연구원(http://yoksa.aks.ac.kr)
한국고전종합DB, 한국고전번역원(http://db.itkc.or.kr)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koreanhistory.or.kr)

金澤榮, <跋文>, 필사본, 강암서예관 소장
李道衡, 『完山誌』, 석인본, 1958
李啓煥, <戒簡>, 이종석 소장
李 沂, 『海鶴遺書』, 신활자본, 국사편찬위원회, 1955
李鳳九, <簡札>, 필사본, 개인소장
李定稷, <簡札>, 필사본, 개인소장
______, <丙子式戶籍單子>, 필사본, 이종석 소장
______, 『石亭集』, 연활자본, 1923
______, 『巽遊錄』, 필사본, 이종석 소장
______, 『魚雁珊瑚』, 필사본, 개인소장
______, 『燕石山房未定文藁內集』, 필사본, 이종석 소장
______, 『燕石山房未定文藁』, 필사본, 이종석 소장
______, 『蔡西湖大人夫婦周甲壽詩帖』, 1881년, 전북대학교박물관 소장
李定稷 외, 『諸家文英』, 필사본, 개인소장
蔡京默, 『豊沛集錄』(전주학총서 50), 전주역사박물관, 흐름출판사, 2020
崔輔烈, 『篔亭集』, 연활자본, 1928
黃 瑗, 『天涯比隣集』, 필사본, 개인소장
黃 玹, 『梅泉續集』, 연활자본, 1913
『金堤郡誌』, 연활자본, 1917,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鳳山李氏世譜』, 목활자, 1927.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崇禎後五庚辰增廣別試司馬榜目』, 목활자본, 188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崇禎紀元後五乙酉式年司馬榜目』, 整理字, 189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衛聖常約』, 필사본, 개인소장
撰者 미상, <石亭山房記>, 필사본, 이종석 소장

구사회,『근대계몽기 석정 이정직 문예이론 연구』, 태학사, 2013
김도영,『전북서예의 중흥조 석정 이정직』, 신아출판사, 2019
鄭魯湜,『朝鮮唱劇史』, 朝鮮日報社, 1940
崔南善,『尋春巡禮』, 백운사, 1926
이정직, 김제문화원 번역,『石亭 李定稷 遺藁』, 김제문화원, 2001
한국서예문화연구회,『김제서예의 전통과 현대』(한국서예사료집1), 2003
_______________,『石亭 李定稷』(한국서예사료집2), 2004

박종홍,「이정직의 칸트 연구」,『박종홍전집』 5, 형설출판사, 1980
박철상,「첩학의 대가, 석정 이정직」,『선비, 전북 서화계를 이끌다 - 석정 이정직』(특별전 도록), 국립전주박물관, 2019
이은숙,「1905~1910년 홍주 의병운동의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2004
최영성,「‘石亭 李定稷 遺藁’ 解題」,『石亭李定稷遺藁』Ⅰ, 김제문화원, 2001

A Study of Seokjeong(石亭) Lee Jung-Jik's(李定稷) Life, Writings and Social Intercourse

Park, Chul-sang

Seokjeong(石亭) Lee Jeong-Jik(李定稷) was a calligrapher, painter and scholar of the late Joseon Dynasty. A lot of research was done on him, and exhibitions introducing his paintings were also held several times. However, the information about Lee Jeong-Jik introduced in these studies and exhibitions contains many errors. Furthermore, information on Social Intercourse was poor as he was mainly active in Jeonju and Gimje. This is a stumbling block to the research of Lee Jeong-Jik. In this essay, I first reviewed the life of Lee Jung-jik and his writings. I used new data to provide more accurate and rich information about Lee Jeong-Jik. Next, I looked at the social intercourse of Lee Jung-jik. Previous studies focused on the relationship of Lee Jung-jik with Hwang Hyeon(黃玹) and Lee Ki(李沂), but I introduced people except them. In particular, it introduced the relationship with Lee Geon-chang(李建昌) for the first time. In addition, a brief summary of social intercourse of Lee Jung-jik was compiled by region.

Key Words : Seokjeong(石亭) Lee Jeong-Jik(李定稷) Lee Geon-chang(李建昌), Lee Ki(李沂), Hwang Hyeon(黃玹)